

오천원권 화폐도안의 자운서원 교체에 대한 건의문

의안 번호	3-151
----------	-------

제안년월일 : 2003년 7월 18일

제안자 : 김영기의원외 2인

1. 주 문

우리 파주시는 율곡 이이 선생의 본향이자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는 자운서원에서 매년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선생의 얼을 기리고 있는 등 율곡 선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오천원권 화폐의 도안을 자운서원으로 대체하여 선생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은 물론 선생의 충효와 애민사상을 받들고 계승하는 계기를 갖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건의이유

가. 우리 파주시는 21세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써 최근 경제, 사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유서 깊은 문향의 고장으로써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물론 수많은 향토유적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유적의 보존은 물론 새로운 문화유적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 특히, 매년 10월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성리학자이며 경세가인 대현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기 위한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율곡 선생의 구도장원을 기리는 유가행렬재연이 펼쳐지고 자운서원에서 선생의 추향제례가 봉행되고 아울러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예술행사, 전시행사 등을 마련하여 선생의 덕을 기리는 등 율곡 선생과 파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다. 또한, 선생의 부친을 비롯해 선생의 선대가 살아온 세거지이며, 뿌리인 본향(本鄉)이자 고토(古土)이며, 선생께서 성장기에 많은 활동을 펼친 곳이고 서원건물과 선생의 가족묘소, 자운서원 묘정비, 이이선생 신도비, 율곡기념관 등이 위치한 자운서원은 파주시의 대표적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율곡 선생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파주시민들로부터 특히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 모든 나라는 역사적으로 추앙 받는 인물을 선정 화폐에 도안하여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그 뜻을 기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세 종류의 지폐에 역사상 존경받는 분들을 그려 넣고 존경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선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파주시에서는 문향의 고장이며, 선현의 얼이 깃든 고장임을 자부하면서 율곡 선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듯합니다. 더구나 선생의 외가인 강릉이 율곡 선생의 생애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식돼 온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율곡 선생이 파주가 낳은 대 성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그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국가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5천원권 화폐의 「오죽헌」 전경대신 파주의 「자운서원」을 도안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3. 제 출 처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경기도, 한국은행, 파주시장, 율곡관련연구단체.

오천원권 화폐도안의 자운서원 교체에 대한 건의문

우리 파주시는 21세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써 최근 경제, 사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파주는 유서 깊은 문향의 고장으로써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우리시에는 용미리 석불입상, 윤관장군 묘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와 화석정, 황희선생 영당지와 이이선생 묘 등의 도지정문화재는 물론 수많은 향토유적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유적의 보존은 물론 새로운 문화유적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월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성리학자이며 정세가인 대현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기 위한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율곡선생의 구도장원을 기리는 유가행렬제연이 펼쳐지고 자운서원에서 선생의 추향제례가 봉행되고 아울러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예술행사, 전시행사 등을 마련하여 율곡선생의 덕을 기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파주에서는 매년 짚·풀문화 공예품 공모전, 전통민속놀이 공연과 파주예술제를 비롯한 미술전시회, 음악제, 청소년 예술축제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파주는 전통 깊은 문향의 고장으로써 각종 문화유산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율곡 이이선생과의 관계를 들여보면 첫째, 파주는 선생의 부친을 비롯해 그의 선대가 살아온 세거지이며, 뿌리인 본향(本郷)이자 고토(古土)이며, 현재까지도 선생의 호가 유래된 율곡(栗谷)리가 파주시 파평면에 행정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선대가 살아온 율곡리 마을 앞 임진강변에 선생이 자주 오르던 화석정 정자가 유지 보존되고 있고 또한, 선생의 선대 묘소가 율곡리 선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부모와 선생 묘소, 그리고 가족묘소가 파주 자운산 선영하에 위

치한다는 것이며, 묘소가 자리한 곳에는 선생의 유덕을 배향하는 자운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생께서 8세 되던 해에 화석정(花石亭)에 올라 화석정8세부시(花石亭八歲賦詩)를 지었으며, 16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파주 자운산에 장례하고 3년간 시묘하였고 25세에 율곡향약의 시초격인 파주향약의 서문을 지었고 37세에 율곡리에 머물며, 우계 성혼 선생과 이기(理氣)와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해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자운서원은 파주시의 대표적 유적으로 이곳에서 매년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추향제례를 올리고 있으며, 자운서원 정내에는 서원건물을 비롯하여 선생의 가족묘소와 자운서원 묘정비, 이이선생 신도비, 율곡기념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곡 선생과 파주와의 관계는 밀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선생의 외가인 강릉이 율곡 선생의 생애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식돼 온 것에 우리 파주시민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국가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5천원권 화폐의 「오죽헌」 전경대신 파주의 「자운서원」을 도안하여 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율곡선생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은 물론 온 국민이 선생의 충효와 애민사상을 받들고 계승하는 값진 계기로 삼고자 우리 파주시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오천원권 화폐에 도안되어 있는 오죽헌 전경대신 율곡 선생의 충효와 애민사상이 깃들여 있고 또한 묘소와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파주시 빽원읍 동문리 소재 「자운서원」으로 대체하거나 신권발행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3. 7. 19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